

35인의 순교자

- 1) 나옥매 (59세 여,교회설립자,전도부인,김순임 사모 모친)
- 2) 신덕철 (40세 남,담임전도사)
- 3) 신장모 (65세 여,신덕철 전도사 장모)
- 4) 마리아 (12세 여,신덕철 전도사 처제)
- 5) 진요셉 (10세 남,주일학교 학생)
- 6) 임유삼 (60세 남,집사)
- 7) 김춘동 (61세 여,집사,임유삼 집사의 처)
- 8) 임항우 (18세 남,성도,임유삼 집사의 자)
- 9) 송복윤 (41세 여,성도,임유삼 집사의 큰 자부)
- 10) 김길순 (27세 여,주교교사, 임유삼 집사의 작은 자부)
- 11) 문봉순 (47세 여,집사,김길순의 친정 모)
- 12) 임태아 (김길순의 임신 중 아이)
- 13) 임화상 (15세 남,성도,임유삼 집사의 손자)
- 14) 임여상 (12세 여,주일학교학생,임유삼 집사의 손녀)
- 15) 진사울 (13세 남,주일학교학생,임유삼 집사의 외손자)
- 16) 진야곱 (11세 남,주일학교학생,임유삼 집사의 외손자)
- 17) 진대식 (9세 남,주일학교학생,임유삼 집사의 외손자)
- 18) 서석근 (58세 여,집사)
- 19) 이복만 (15세 남,성도)
- 20) 윤성전 (70세 여,집사)
- 21) 조재운 (19세 남,성도)
- 22) 조정덕 (15세 여,성도)
- 23) 조운기 (11세 남,주일학교학생)
- 24) 조인심 (41세 여,집사)
- 25) 이재조 (60세 남,집사)
- 26) 이춘만 (23세 남,성도)
- 27) 김민수 (68세 남,김태구 목사 부친)
- 28) 오죽현
- 29) 현영필
- 30) 임필남
- 31) 임동생 (남, 임필남의 동생)
- 32) 해남덕
- 33) 박석현 (목사, 광주양림교회)
- 34) 김순임 (박석현 목사 사모)
- 35) 박원택 (박석현 목사 자)

제109권 20-1호

2022년 5월20일

우리 교회는 순교믿음 부활신앙 오직예수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순교사적지 지정 감사예배

담임목사: 이성배

원로장로 : 김 동 문

시무장로:

최 영 철 김 기 우

은퇴장로 : 배 국 선

강 연 수

박 형 식

조 남 춘 이 원 규

명예장로 : 박 정 수

김 병 찬

김 판 옥

성가지휘 : 김 남 미

반 주 :

이 다 슝

순교사적지 지정 감사예배

오전 11:00

집례 : 담임 목사

목	도		다	같	이
찬	송	70 장	다	같	이
기	도		전	장원	목사
성	경	행 2장 42-47	이	상구	목사
찬	송	606 장	다	같	이
말	씀	초대교회 모습	김	홍철	목사
광	고		담	임	목사
찬	송	358 장	다	같	이
축	도		우	창국	목사
폐	회		다	같	이

제 막 식

제	막	식	을 위한 기도		주	경	림	목사
경	과	보		김	기	우	장로
지	정	서	전달식	협	의	회	장
축	사		문	세	광	목사	
축	사		이	은	선	교수	
제	막	식		다	함	께	

경 과 보 고

상월그리스도의교회 순교 사적지 현판 제막식 경과보고

- * 상월그리스도의 교회는 순교자 35인의 교회로 순교신앙에 대한 믿음으로 지역사회를 복음화 하며 최선을 다하여 오다가 순교자들의 신앙을 후대에 길이 남기고 순교정신을 계승하고자 1993년 3월23일 교회 마당에 순교비를 건립하여 순교자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 * 2009년 3월12일 순교 장소에 순교비를 세웠습니다.
- * 2019년 3월28일 순교자이고 교회설립자이신 나옥매 전도부인을 상월그리스도의교회 부활의 동산에 이장 안장하였습니다.
- * 2020년 8월19일 순교장소를 소 공원화 하여 침례식과 세족식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 2022년 4월5일 협의회 회장단이 본 교회를 방문하여 장로님들과 간담회를 하고 본 교회에서 순교사적지교회로 지정하여주기를 청원하였습니다.
- * 2022년4월18일 협의회 임원회에서 상월그리스도의교회 순교사적지 지정을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 2022년 5월 20일 순교사적지 교회 현판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35인 순교한 상월그리스도의 교회"

“한국그리스도의교회”는 35인의 순교자가 있는 상월그리스도의교회를 “한국기독교순교사적지”로 지정하여 후대 신앙인들에게 순교 믿음과 부활신앙을 계승 하고자 “한국기독교 순교사적지교회”로 지정하여 현판식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기독교순교사적지 지정 감사예배는 상월그리스도의교회담임 이성배목사의 사회로 협의회협력총무 전장원목사의 기도 협의회부회장 이상구목사의 성경봉독 행2장42-47 후 협의회장 김홍철목사의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증거하고 새목포교회 우창국목사의 축도로 마치고 제막식을 위한 기도를 해남교회 주경림목사가 기도하고 제막식에 대한 경과보고를 상월그리스도의교회 김기우장로가 보고하고 한국그리스도의교회에서 순교사적지 지정서를 상월그리스도의교회 김동문 원로장로에게 전달하다. 축사는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회장을 역임한 문세광목사와 세종대명예교수이며 한국 신 연구소 소장인 이은선 교수가 하고 현판제막식을 하다.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상월상리길 42번지에 있는 상월그리스도의교회는 1913년 나옥매 전도부인에 의해 설립된 109년 된 교회입니다.

해방 이후 극심한 좌우익의 이념 대립과 6.25 한국전쟁 발발 후 좌익세력에 의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되는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상월그리스도의교회도 35인의 순교자들이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순교의 현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상월그리스도의교회는 순교신앙으로 희생된 교인들을 위해 1993년 3월23일 교회 마당에 순교자기념비를 세우고 그들의 깊은 신앙을 기

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순교자들의 기도 내용과 순교상황을 알리는 기념비를 순교 장소에 세워 현재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도록 거룩한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현재 “순교자영성훈련”을 하고 순교 장소에서 침례(세례)식과 세족례를 진행할 수 있는 공원화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월그리스도의교회는 순교신앙훈련을 위한 성지(聖地)로써 더욱 깊은 감동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순교자 중, 교회설립자이신 나옥매전도부인은 헌신과 복음전파사역으로 영암지역 여러 교회설립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나옥매 전도부인은 목숨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4년 5개월간을 옥살이 하였던 유명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순교당시 상월그리스도의교회 교역자 신덕철(당시40세)전도사도 일제의 신사참배를 목숨 걸고 거부할 정도로 신앙의 절개가 있었고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신덕철전도사는 장모와 처제와 함께 순교하였습니다.

순교 당시 스무 살 청년이었던 임수상(92세)씨는 빨치산 대원에게 가족을 잃었던 그날의 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두 동생이 손이 묶인 채 학살 현장으로 끌려갔고 임씨만 구사일생으로 탈출에 성공하였습니다. 임씨는 자신의 가족을 포함해 기독교인 35명이 희생된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그리스도의교회’ 집단 학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목격자입니다.

당시에 끌려가다 줄을 풀고 피신하여 현재 김포에 생존하시는 임수상(92세)씨의 증언에 의하면 할아버지 임유삼 집사(당시60세) 할머니 김춘동 집사(당시61세)는 일가족이 함께 붙잡혀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중에도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맘 가지고 가겠네’로

시작하는 찬송을 교인과 함께 부르면서 순교 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나이 어린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58세였던 서석근(여) 집사는 일주일간 금식하고 교인들에게 “이때 죽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며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순교 하였습니다.

박석현목사(광주양림교회) 김순임사모 박원택(박석현목사, 자)은 전쟁을 피해 처가에 왔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박석현 목사의 청년시절은 “박석현(박석현은 후에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하고 장로교 목사가 되어 나주에서 목회하였고 해방 후 광주 양림교회에서 목회하다가 6.25 전쟁을 맞아 영암에서 피난 중 공산군에게 체포되어 장모인 나옥매 전도부인과 함께 순교하였다. 김수진, 『호남 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고려글방, 1992, 523쪽.), 김인수 등과 함께 ‘보향단’(補鄕團)을 결성, <독립신문> 등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했다가 체포되어 목포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는데 옥중에서 전도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석방된 후 진도로 돌아와 함께 개종한 ‘옥중 친구들’과 1920년 진도읍교회를 설립하였고(진도읍교회(현 진도중앙교회) 설립에 대하여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하(1930년)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珍島島教會가 設立되다. 先是에 本地 靑年들이 信從하고 教會를 設立하고 宣敎師 孟顯理가 傳道人을 派送하여 協力傳播한 結果 六十餘人의 信者가 南洞에 貰屋을 借하여 禮拜하다가 舍心捐補하여 二百圓으로 八間 草家를 買收하여 禮拜堂으로 使用하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하, 연세대학교출판부, 1968(영인본), 315쪽). 진도중앙교회에서는 교회를 설립한 ‘본지 청년들’을 목포 형무소에서 개종하고 돌아온 정경옥과 박석현, 박종현 등 ‘보향단’ 동지들로 보고 있다. <진도중앙교회 요람>, 2004.)”

박석현목사 가족은 끌려가면서도 나지막하게 ‘당시 찬송가 79장(피난처 있으니…)을 부르면서’ 처형장에서 잠깐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큰소리로 기도한 뒤 순교하였습니다. 가족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도 태연자약하게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박석현 목사는 아들 원택군을 살릴 수 있었으나 수양딸로 데리고 왔던 김귀순 자매를 위해 함께 순교의 길을 가며 “ 박석현 목사는 김귀순의 생명을 살려달

라고 애원하였다… 이 아이는 나하고 피도 물도 섞이지 않았고, 가난한 아이니까 살려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공산당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고 했으니 저 불쌍한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공산당들은 그 자매를 석방해주었다고 합니다. 박 목사는 마지막 주머니에서 돈을 얼마 꺼내면서 “귀순아 돌아가다가 배고프면 이 돈으로 밥 사먹어라 하였다” 그 때문에 박석현 목사와 가족들의 송고하면서도 가슴 아픈 순교가 후세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순교자 중에는 아홉 살에서 열두 살 사이의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과 엄마 뱃속의 태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월그리스도의교회 예배당도 파괴되었습니다. 빨치산들은 교회를 부수고 방공호로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피난하여 살아남은 성도들은 전쟁이 끝난 뒤 교회를 다시 건축하였습니다.

교회 재건의 중심이 된 진성구장로 임상단 권사는 3명의 자녀가 순교하였습니다. 진성구 장로의 증언은 1957년 선교사가 미국으로 보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가 발행한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1957년 2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자료 제공 및 번역: 조동호 목사,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그리스도의 교회가 낳은 사랑의 원자탄 진성구 장로](#)> (영문을 번역)

-진성구 장로는 1950년 10월 말 어느 아침에 수확을 앞둔 벼를 살펴 보려고 논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 진성구 장로를 에워쌌다. 그리곤 “거만하게 굴지 마라. 세상이 바뀌었다. 양키의 똥개들인 너희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해 버리겠다.” 며 주동자가 엄포를 놓았다. 그들의 눈은 살벌했고 강경했으며 냉정했다. 그들의 이 소행은 마을의 나지막한 언덕 너머에 진을 치고 있는 공산군 지

Love Your Enemies

(The following story compares well with a more famous one in the book, *The Christ of the Korean Heart*. That one tells the wartime experiences of one Chin Song Koo.)

Bro. Chin Song Koo was an elder in the Sang Wul ri Church of Christ when, in 1950, the Communists came to his part of extreme south-eastern Korea.

One morning as Bro. Chin was going toward his fields of ripened rice he suddenly found himself surrounded by several of his fellow villagers. Their leader spoke: "Don't hold your nose so high. The world is quite changed now and it is time for you Christians, Yankee's dogs, to vanish away." Bro. Chin saw that he faced only cold, stern, unsympathetic eyes. It was obvious that his attackers were seeking the applause of their leaders, the Communist army which was then just over a small hill from his village.

That night Bro. Chin was confined in a small room, waiting for the "peoples' judgment" the next day. No doubt that his fate was already decided before he was caught. He was very frightened and he thought that his days on earth were finished. He prayed that he might be prepared for the end. The peace of the Lord came to him and his nerves were settled.

Next morning Mr. Chin found himself in a cave on a mountainside, not knowing how he had come there. As he sat pondering his situation his past life came before him.

He recalled especially a dream which he had soon after he was married. He had seen a tree with two branches, one with five fruits on it, and the other with three fruits. Then he saw the three fruits fall to the ground.

Finally Bro. Chin crawled down the mountain and was taken in by a woodchopper who, with his wife, took care of him for several days, until the Communists had been forced back north and Bro. Chin's village was again set free. With much anxiety for his family he hastened home to find that his three sons had been beaten to death by his Communist neighbors, and that those men had been captured. Then friends gave Mr. Chin a gun that he might take his revenge against those men.

Tears flowed down his face as our brother considered his situation. He has lost his three children and his heart seemed to be full of sorrow and hatred. Then it came to him that these feelings were strange to him as a Christian. Before him were three graves and the murderers of his children. What should he do?

Out of the village and around the hill went three men followed by a fourth with a gun. A little later three shots were heard, and everyone thought that vengeance had been taken.

But, being a Christian, Bro. Chin had released the three men and six months later they returned to their home. During the spring of 1951 three men were seen silently to place wreaths on three little

mounds on the hillside not far from Bro. Chin's home.

This spring (1957) Bro. Chin and his wife are expecting their fifth post-war child. Bro. Chin believes that at least some dreams come true! (This brother is a member of the Board of Trustees of our seminary here in Seoul.)

Relief Packages

The Used Clothes Dept. in the third floor attic, is the emptiest it has been since we came. During Oct. and Nov. we systematically gave out to the orphanages, seminary students, pastors and churches. A few packages are coming now, and we trust that there will be enough for the spring distribution in April. Please remember that the address on these packages should include "K O R E A N CHRISTIAN MISSION," or without this, there will be tax charges. With the passing of the time of emergency relief for Korea we need now to emphasize help for the orphans, seminary students and preachers. And for the latter we believe that clothes should be our chief help, except in case of emergencies, as illnesses.

"The Lord gives me to drink of His love as out of a river. I laid me down but could not sleep, through a deep and comfortable sense of the love of Christ. His Spirit rested on me, and made my heart flame with love to my God, my all. . . The fire of divine love burned incessantly in my soul".—Thomas Walsh.

의 열매를 매단 나뭇가지의 열매들이 땅에 떨어지는 꿈이었다.

정신을 차려 진성구는 산에서 기어서 내려왔고, 벌목꾼에게 발견 되어 그들 부부로부터 수일간 정성스런 간호를 받았다. 그 사이에 공산군들이 쫓겨 북쪽으로 퇴각하였고, 마을은 그들로부터 해방되었다. 진성구는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의 세 아들들이 이미 마을 빨갱이들로부터 살해된 후였다. 마을의 빨갱이들은 곧 체포되었다. 친구들은 진성구에게 총을 건네 주면서 그들에게 복수하라고 등을 떠밀었다.

이 목불인견의 상황에 처한 진성구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세 명의 아들들을 모두 잃은 그의 마음엔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찬 듯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성구는 그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그리스도인인 자신에게 웬일인지 낯설게만 느껴졌다. 자신의 눈앞에는 금지옥엽 같은 아들들을 묻은 세 개의 무덤들이 있고, 또 그들을 죽인 살인마들이 있었으며, 자신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이 일을 어찌해야하는가?

마을 밖에 언덕 주변으로 세 사람이 끌려갔고 또 한 사람이 권총을 들고 그들을 뒤따랐다. 얼마쯤 후에 세 발의 총소리가 났다. 그 총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보복살인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었던 진성구는 그들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6개월 후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1951년 봄철에 세 사람이 말없이 세 개의 작은 무덤위에 꽃다발을 놓고 가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 무덤들은 진성구의 집에서 가까운 언덕비탈에 있었던 것이다.

금년 봄(1957)에 진성구 장로와 그의 부인은 6.25동란이후 낳은 다섯 번째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다. 진성구 장로는 적어도 몇몇 꿈들은 이뤄진다고 믿고 있다.-

현재 상월그리스도의교회는 지역 복음화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주님사

도자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꾸민 짓이 분명해 보였다.

그들은 그날 밤 진성구를 작은 방에 가뒀다. 내일 진성구를 인민재판에 세울 심산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진성구를 납치하기 전부터 이미 그의 운명을 결정해 놓고 있었다. 진성구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제 이 땅에서의 내 삶은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진성구는 최후를 잘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주님의 평안이 임했고, 마음이 안정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진성구는 자기 자신이 산중턱 동굴에 버려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그곳까지 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진성구는 쪼그리고 앉아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돌연 살아온 지난날이 회상되었다. 특히 그가 결혼직후에 꿔던 꿈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그때 그는 꿈에서 두 개의 가지가 돋아난 큰 나무를 보았는데, 한 가지에는 세 개의 열매가 매달려 있었고, 다른 가지에는 다섯 개의 열매가 매달려 있었다. 그런데 세 개

량을 증거 하면서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순교신앙의 계승을 위하여 “순교자 영성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11기를 수료하였고 신앙의 견고함을 세워가는데 일조 하는 귀한 영성훈련이다. 앞으로도 상월그리스도의교회는 주님사랑 교회 사랑 천국소망의 신앙을 확립해 나가는 순교신앙을 열방을 향해 펼쳐나갈 것이다

- 29) 현영필
- 30) 임필남
- 31) 임동생 (남, 임필남의 동생)
- 32) 해남덕
- 33) 박석현 (목사, 광주양림교회)
- 34) 김순임 (박석현 목사 사모)
- 35) 박원택 (박석현 목사 자)

35인의 순교자 명단

- 1) 나옥매 (59세 여,교회설립자,전도부인,김순임 사모 모친)
- 2) 신덕철 (40세 남,담임전도사)
- 3) 신장모 (65세 여,신덕철 전도사 장모)
- 4) 마리아 (12세 여,신덕철 전도사 처제)
- 5) 진요셉 (10세 남,주일학교 학생)
- 6) 임유삼 (60세 남,집사)
- 7) 김춘동 (61세 여,집사,임유삼 집사의 처)
- 8) 임향우 (18세 남,성도,임유삼 집사의 자)
- 9) 송복윤 (41세 여,성도,임유삼 집사의 큰 자부)
- 10) 김길순 (27세 여,주교교사, 임유삼 집사의 작은 자부)
- 11) 문봉순 (47세 여,집사,김길순의 친정 모)
- 12) 임태아 (김길순의 임신 중 아이)
- 13) 임화상 (15세 남,성도,임유삼 집사의 손자)
- 14) 임여상 (12세 여,주일학교학생,임유삼 집사의 손녀)
- 15) 진사울 (13세 남,주일학교학생,임유삼 집사의 외손자)
- 16) 진야곱 (11세 남,주일학교학생,임유삼 집사의 외손자)
- 17) 진대식 (9세 남,주일학교학생,임유삼 집사의 외손자)
- 18) 서석근 (58세 여,집사)
- 19) 이복만 (15세 남,성도)
- 20) 윤성전 (70세 여,집사)
- 21) 조재운 (19세 남,성도)
- 22) 조정덕 (15세 여,성도)
- 23) 조운기 (11세 남,주일학교학생)
- 24) 조인심 (41세 여,집사)
- 25) 이재조 (60세 남,집사)
- 26) 이춘만 (23세 남,성도)
- 27) 김민수 (68세 남,김태구 목사 부친)
- 28) 오죽현



